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한국 백신 위상과 동향 전망

오는 4일부터 이틀 간 하니움스포츠펀터
2016년부터 백신산업 비전과 과제 제시



백신산업 발전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이 관심이다.

화순군은 11월 4일과 5일 이틀 간 하니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을 주제로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장 토론,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세계 백신산업 동향을 살피고 우리나라 백신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포럼에 백신 개발 권위자로 손꼽히는 제롬 H. 김 국제백신협회(IVI) 사무총장 등 국내외 백신 석학 5명이 연사와 토론자로 나선다. 의료계, 학계, 기업,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1월 4일에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속 한국 백신의 위상,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 등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 방향, 일상회복의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롬 김 사무총장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글로벌 백신에 대한 교훈' 주제 발표, 한이 김 라이트 펀드 대표,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 강창을 서울대 교수, 성백만 백신실용화기술개발장관의 세션 발표가 이어진다.



지난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포럼' 기념촬영 모습

5일에는 화상을 통해 '국제백신학회(ISV)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화순군과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화순국제백신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화순군은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해 세계 백신 전문가, 해외 백신의약품 기업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위상을 높였다. 화순군과 전남도는 오는 4일 포럼 개막에 앞서 국내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그동안 화순국제백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기술, 치료백신과 면역치료의 미래 등 세계 백신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코로나19 이후 우리 지역의 백신산업 발전 비전과 역할을 모색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백신 5대 강국 '화순 역할론' 주장...K-글로벌 백신 거점 도약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구충곤 군수(오른쪽)가 지난 9월 화순백신산업특구를 방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백신 개발의 전(전) 단계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차세대 면역치료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역 발전 비전의 하나로 '신(新)경제 1번지 화순'을 제시하

며 백신·생물의약품 인프라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백신·생물의약품·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민선 6·7기에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등 대규모 국책 연구·지원기관과 사업 유치에 성공하며 기반을 확충했다. 구충곤 군수는 "백신·바이오·첨단의료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더 넓고 든든하게 다진 만큼 명실상부한 'K-글로벌 백신 허브·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추진으로 구충곤 군수의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구 군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화순백신산업특구 역할론'을 주창하며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국비 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기반, 성장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과 전남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한 공약으로 만들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충곤 군수는 "충북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차별화한 면역치료 중심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은 백신 5대 강국 목표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며 "지역의 풍부한 산림 치유 자원, 첨단 의료 서비스, 백신·바이오 기반을 연계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된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